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married life of married women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on the Happiness Index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 사 박미려*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 사 김영순**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Park, Mee Ryeo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Kim, Young S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married life of such women on the happiness index and to improve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by improving married life.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Women and Family Panel Survey (4th year data) carried out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subjects for the final analysis totaled 885 married women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born between 1955 and 1963. Of these, 550 were married women in a dual income family, and 335 were married women in a husband-income family. IBM SPSS Statistic 21.0 was

* 주저자: 박미려(park_mr@hanmail.net)

** 교신저자: 김영순(angela1203@hanmail.net)

us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s happiness index was higher in cases where the women had a more positive view of their husbands, the more often they were involved in leisure activities, the better their conflict resolution whenever there was a clash of opinions,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econd, in the case of dual income families, the women's happiness index was higher where they had a positive view of their husbands, their conflicts were better resolved,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ird, in the case of married women in a husband-income family, their happiness index rose the more positively they perceived their husbands, the more often they were involved in leisure activities together,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Key Words :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 기혼여성(married woman), 행복지수(happiness index), 부부생활(married life), 맞벌이가정 기혼여성(married woman in a dual income family),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married woman in a husband income family)

I. 서론

일반적으로 베이비붐(baby boom)이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출생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는 베이비붐세대(baby boomer)라 불려진다(최원석·이진숙, 2014). 베이비붐세대처럼 특정 인구세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의 인구 구조에 특이한 특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이여봉, 2012). 베이비붐세대는 경제발전의 주축으로써 이전 세대와는 달리 고학력, 고수입, 고도성장 시대의 중심에 있던 세대로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경험하였다(정호성 외, 2011). 현재 생애주기 상 중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일과 가족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부모의 노화로 인한 부양문제 등 삶의 각 영역과 역할에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한경혜·손정연, 2015).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인 55세 이

전에 이미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적지 않다(방하남 외, 2010; 한경혜 외, 2011). 한국의 취업자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멈추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이 평균 68세임을 고려해보면(방하남·신인철, 2011), 많은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으로부터 퇴직 후에도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이어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한경혜·손정연, 2015). 이미 2010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며,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및 노인복지를 위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양정선 외, 2011).

특히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그 이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교육수준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고,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 소극적이며, 생계문제에 있어서 남편 또는 자녀에게 의존적인 속성을 보인다(박창제, 2008). 베이비붐세대인 50대 남성들

은 직접 은퇴를 경험하고, 노후에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가장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상실될 경우에 경제적 수단이 전무해지고,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노부모 및 미독립 자녀의 돌봄이라는 문제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이중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서미경, 2012). 또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남성 가장의 실업, 폐업,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주 수입원의 상실을 경험한 바가 많고 그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제활동에 내몰리게 된 경우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의 부양모델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맞벌이모델로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최원석·이진숙, 2014).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지지를 받는 노인세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한 자녀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깁 세대’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크다(최원석·이진숙, 2014). 결국 자녀의 집중 양육시기를 경과한 중년기 이후 여성들의 취업여부는 이들 스스로가 의존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핵가족의 증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부관계,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기초한 가족생활의 확립과 같은 가족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며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그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김은경, 2013). 특히 부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행복지수가 결정된다(이여봉, 2010).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의 공유 활동은 이들의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은퇴 후 기간으로서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겪는 사회적 역할 및 소득,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 스스로가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기에 적응하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장명숙·박경숙, 2012). 개인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과 사회의 다른 연령층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이들이 미래 노년기가 되었을 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은 전체 국민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사람들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삶의 질, 행복과 같은 심리적 주관적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가사일을 수행하고 가족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부 즉, 기혼여성의 행복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할 때 여성의 취업여부를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지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각 개인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과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개인적인 특성이 다른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경제

적, 문화적 자원들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이비붐세대는 가족역할과 관계에 있어 가부장적 사고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평등주의 사고의 유입을 경험한 세대이다. 즉, 급격한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큰 변화를 가지지 못한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취업여부에 따라 가족과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배우자의 역할에 있어 상이한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배우자생활 및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부부갈등, 가사노동분담,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부부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요인들이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세대의 행복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통상 삶의 질, 복지, 웰빙, 삶의 만족도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곽인숙, 2013) 또는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깊은 만족’(유제민, 2012)을 뜻한다. Diener는 개인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한사람이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

을 모두 지칭하는 이름이 행복이라고 정의하였다(오혜경 역, 2011; 정지범, 2011).

또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객관적 차원에서 행복은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삶의 질’ 같은 것으로, 어떠한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 조건을 소유한 삶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환경, 수명,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 안전 등의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평가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주관적 차원에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나 정서적 반응으로 규정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행복을 외부의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행위 당사자의 내부 기준에 맞춰 정의하는 것이다. 주로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 자립감, 성취감, 스트레스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측정한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질 개념을 기초로 하며, 기본이나 감정의 주관적 평가 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 판단까지 다차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통상 ‘행복’은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복에 대한 대중적,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가족관계, 일, 소득, 건강, 친구, 사회참여, 여가, 마음의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일은 중년기 성인남녀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미·류승아·최인철, 2012; 박영신·김의철, 2009; Layared, 2005; Kingdon & Knight, 2006; Selim, 2008). 배우자와의 관계는 개인의 행복이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결혼의 보호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증연구들이 검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박영신·김의철, 2011; Layared, 2005),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이주연·정혜정, 2013; Karney & Bradbury, 1994). 또한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영범·박준식, 2004).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부부생활의 현주소에 대한 체계적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베이비붐세대의 절반가량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한경혜 외, 2011).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베이비붐세대들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이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이들의 전반적 삶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한국 전쟁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 총 9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14.1%정도인 711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통계청, 2014). 베이비붐세대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장 은퇴와 가족생활주기 상 빈둥우리기(empty nest stage)에 있어 가족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문정화·김미혜, 2015; 손정연·한경혜, 2014).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 자녀수의 감소, 특히 노인부부가구 증가 등 가족의 삶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베이비붐세대는 자녀 독립 후 부부만이 생활하는 시간이 부모 세대에 비해 무려 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에게 배우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손정연·한경혜, 2014).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의 40%가 지난 5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고(한경혜 외, 2011), 이혼건수가 부모세대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정순돌, 2011), 베이비붐세대 10명 중 2명 정도가 10년 후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신연희, 2010) 현재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은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문정화·김미혜, 2015).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의존이 매우 높아지는 ‘제2의 부부기’로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김태현, 2012). 과거 전통사회에서 한국가족의 중심은 부자관계였고, 여성은 대를 이을 남아를 출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으나, 오늘날 가족의 중심은 부부에게로 그 축이 옮겨졌다. 중년기 이후의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임나현·하규수, 2012).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 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만족감에서 새삼 진실한 동반의식을 갖게 되고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계의 재정립 시기를 갖게 된다(오명자, 2010; 임나현·하규수, 2012). 더욱이 노년기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질환으로 신체적, 정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의 부양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들의 부부관계 및 부부생활은 성공적인 노후뿐

만 아니라 노후의 생활만족도, 건강, 장수, 행복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정화·김미혜, 2015; 임선영·김태현, 2002).

따라서 중년기 시기의 재정립되는 조화로운 부부생활은 은퇴 후 시기까지의 삶의 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베이비붐세대의 현재의 삶은 물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중년기와 노년기의 전환점에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은 이들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3. 행복과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생활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생활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 남편과의 시간으로 살펴보았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화자, 1991). 김향순, 김순덕과 구명이(201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동반여가활동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삶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 동반여가활동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김호경, 2011; 변화순 외, 2010; 이여봉, 2010;). 부부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생활만족도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고현선·지금수, 1995), 이성적이고 긍정

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이선미·전귀연, 2005). 가사분담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행복도는 배우자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숙·옥경희, 2014; 조성희·박소형, 2010).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빈도와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Johnson·Zabriskie·Hill, 2006). 노동시장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비가 미비한 현실과 베이비붐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일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정호성 외, 2010), 경쟁적 노동시장 구조와 긴 업무시간 등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한경혜·손정연, 2015). 베이비붐세대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베이비붐세대 개인의 삶 및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여부와 행복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남제(1987)는 취업여성의 경우 부부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이은정(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애정표현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부부생활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맞벌이·남편 외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조사’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88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550명,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335명이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통계변수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인 연령, 남편 연령, 본인 학력, 남편 학력을 사용하였다. 본인과 남편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베이비붐세대 부부생활특성이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여성의 취업상태를 고려하고자 한다. 맞벌이여부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남편은 모두 취업상태에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지, 미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맞벌이와 남편외벌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부생활특성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 여가활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 남편과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나는 남편과 평소 대화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의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남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

렇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동반 여가활동은 ‘지난 한 달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세부문항인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관람하기’,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의 총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동반 여가활동의 측정은 한 달간의 이루어진 여가활동의 주기에 따라 한 달에 한 번도 안한 경우 0, 한 달에 한번 한 경우 1, 2주에 한번 한 경우 2, 1주에 한 번한 경우 4, 1주일에 두 번 이상한 경우 8의 연속변수로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갈등해결은 ‘지난 1년간 배우자와 심각한 의견갈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세부문항인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의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갈등해결의 척도는 항상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한번도 없다는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이 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사노동분담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편과의 시간은 ‘평소 주중에 남편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에 대해 하루 평균 몇 분인지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 정도를 묻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행복지수는 매우 불행하다는 1점에서부터 매우 행복하다는 10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부부생활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연령은 평균 52세, 남편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비율이 44.0%, 고졸이하의 비율이 43.3%, 전문대졸 이상 12.8%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2.6%, 중졸이하 32.4%, 전문대졸 이상 25.0%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62.1%는 맞벌이로 나타났고 37.9%는 남편 외벌이로 나타났다.

〈표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본인 연령		-	-	52.75	2.54
남편 연령		-	-	56.06	3.83
본인 학력	중졸이하	389	44.0	-	-
	고졸이하	383	43.3	-	-
	전문대졸이상	113	12.8	-	-
남편 학력	중졸이하	287	32.4	-	-
	고졸이하	377	42.6	-	-
	전문대졸이상	221	25.0	-	-
맞벌이 유무	맞벌이	-	-	550	62.1
	외벌이	-	-	335	37.9

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특성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는 평균 6.53점으로 보통이상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서 평균 2.8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 여가활동의 경우 평균 0.49점으로 나타나 한 달에 한 번도 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은 5점 만점에서 평균 4.13점으로 나타나 갈등해결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사노동분담의 경우 5점 만점 중 평균 3.01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67분으로 나타났다.

〈표 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 특성

부부생활특성	평균	표준편차
행복지수(10점)	6.53	1.59
남편에 대한인식(4점)	2.85	.49
동반 여가활동(회/월평균)	.49	.86
갈등해결(5점)	4.13	.52
가사노동분담(5점)	3.01	.92
남편과의 시간(분/일평균)	167.74	93.82

3.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부부생활의 차이

맞벌이여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부생활변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갈등해결, 남편과의 시간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2.81점,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2.91점으로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이 맞벌이 가정 여성보다 남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 여가활동의 경우, 한 달간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37회,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69회로 나타나,

〈표 3〉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부부생활 특성의 차이

부부생활특성	맞벌이(550)		남편 외벌이(33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에 대한 인식	2.81	.50	2.91	.47	-2.85 **
동반 여가활동	.37	.74	.69	.69	-5.09 ***
갈등해결	4.08	.53	4.19	.50	-3.04 **
가사노동분담	2.99	.91	3.02	.94	-.46
남편과의 시간	161.74	90.30	177.58	98.69	-2.44 *

* p<.05, **p<.01, ***p<.001

남편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동반 여가활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4.08점,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4.19점으로 나타나,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이 남편과의 갈등을 더 원만히 잘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남편보다(평균 약 161분) 남편 외벌이 가정의 남편(평균 약 177분)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변인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이 남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향순 외(201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자주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 김호경(2011), 변화순 외(2010), 이여봉(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해결을 더 잘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와,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선미와 전귀연(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신명숙과 옥경희(2014), 조성희와 박소형(2010)의 연구 결과와 같다.

〈표 4〉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생활특성	전체	
	B	β
남편에 대한 인식	1.334 ***	.406
동반 여가활동	.205 ***	.112
갈등해결	.229 *	.075
가사노동분담	.170 **	.098
log남편과의 시간	.171	.028
상수	.785	
F	68.104 ***	
R ²	.283	

* p<.05, ** p<.01, *** p<.001

5.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어부별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맞벌이어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여성은 남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경신과 김오남(1996)의 연구에서 남편과의 대화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갈등해결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유리(2000)의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 여성은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호경(2011)연구와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나비와 유영주(1999)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남편 외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은 남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령 전업주부의 배우자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김여진과 홍환(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동반여가활동을 더 자주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맞벌이 주부에 비해 개인의 일보다는 가족의 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아 부부간 동반 여가활동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김호경(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로 부부생활이 행복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부부생활 개선을 통한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표 5>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어부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생활특성	맞벌이(550)		남편 외벌이(335)	
	B	β	B	β
남편에 대한 인식	1.359 ***	.402	1.271 ***	.406
동반 여가활동	.145	.065	.319 ***	.218
갈등해결	.392 **	.125	-.069	-.024
가사노동분담	.183 *	.099	.173 *	.112
log남편과의 시간	.345	.057	-.265	-.041
상수	-.291		3.012 ***	
F	44.912 ***		26.282 ***	
R ²	.295		.292	

* p<.05, ** p<.01, *** p<.001

2012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최종표본으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885명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550명,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335명이었다.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Statistic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동반 여가활동의 경우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반 여가활동에 있어서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사회생활, 직업생활이 없어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과 생활이 많고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해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갈등해결의 경우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 남편과의 의견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사결정 이외에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있어, 스트레스원의 원만한 합의는 기혼여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이기에 충분하다.

셋째,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에게 있어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은퇴의 과도기에 있어 시장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가사노동분담의 경우 앞으로 은퇴 생활의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분포에 있어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가 약 62%인 것으로 보아, 맞벌이가정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 부분인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큰 요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라 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의 가장 큰 영역이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을 통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때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성취감, 자기표현, 자기만족, 자아실현 등의 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만을 위한 직장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점차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나 여가 등을 잘 마련한다면, 부부관계가 신혼 초기보다 더 만족스러워 질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과 여가, 현재와 과거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중년기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닌 노년기가 되어서도 꾸준히 가족여가를 실천한다면 행복지수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의 여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성 여가를 위한 공동체 및 봉사 프로그램, 일상화된 여가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활동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 간 갈등해결방법이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간 갈등해결이 잘 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평소 부부 간 소통과 관심이 소원할 수 있다. 공유하는 생활사건이 적을수록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사소한 것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회생활을 통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고갈은 맞벌이 가정 부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부부 간 원만한 갈등해결은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부부의 원만한 갈등해결을 통한 행복지수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기 전 갈등예방의 차원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부역량강화 캠프와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갈등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부에게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행복지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들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 분담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분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베이비붐세대 뿐만 아니라 점차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부부 간 평등의식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은퇴를 경험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의 중심은 일터에서 가정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은퇴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베이비붐세대 남자들은 평생직장 등 외부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 자세가 몸에 배어 있고, 지시하고 복종하는

상하관계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식사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길도는 생활을 지속하는 등 생활 방식을 고치지 못하면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탄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황혼이혼의 증가는 가사노동을 평생 지속하는 여성에게 있어 은퇴로 인해 사회노동의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은 더 이상 교환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자신이 가져야 할 자기의 역할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의 기대수명은 100세에 육박하여, 결혼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30-50년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사회발전을 떠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인 가사일의 배움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찾는 가족친화정책이 다양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은퇴 후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는 베이비붐세대 부부가 해체되지 않고 소원해진 관계를 재정립하고 부부간 평등의식을 정립 할 수 있는 부부관계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요리,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는 패널자료로 연구자가 원하는 특성을 십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 있어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아내 외벌이·무벌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2010년부터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후속연구에

서는 배우자의 취업여부에 있어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배우자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에는 경제적인 특성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기초연구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까지 포함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부생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변인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샌드위치 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촌 관계인 배우자 관련 변인뿐만이 아닌 1촌 관계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관련 변인들까지 포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2) 광인숙(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6.
- 3)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 Vol.3.
- 4) 김정미·류승아·최인철(2012). 기혼 중년 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05-134.
- 5) 김정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6) 김나비·유영주(1999).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81-106.
- 7) 김여진·홍환(2009).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

- 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93-118.
- 8) 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9) 은경(2013). 부산·경남지역 베이비붐 세대 기혼여성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437-453.
- 10) 김태현(2012). 노년학. 파주: 교문사.
- 11) 김향순·김순덕·구명이(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 12) 김호경(201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화자(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중, 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문정화·김미혜(2015). 베이비부머 배우자 관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2), 105-132.
- 15)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세대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16) 방하남·신인철(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165-177.
- 17) 박영신·김의철(2009). 한국성인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18) 박영신·김의철(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19)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20) 변화순 · 김민순 · 정수연 · 백혜정(2010). 경제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1) 서미경(2012). 중 · 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199-226.
- 22) 신명숙 · 옥경희(2014).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9(1), 5-25.
- 23) 신연희(2010). 베이비붐세대 실태에 관한 조사: 위기의 베이비붐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4) 양정선 · 고지영 · 이상림 · 이정화(2011). 경기도 베이비붐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보고서.
- 25) 오혜경 역(2011).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Diener, E., & Biswas-Diener, R. (2008).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파주: 21세기 북스
- 26) 유제민(2012). 성과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한국 노인의 행복결정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375-400.
- 27) 이선미 · 전귀연(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7), 93-107.
- 28) 이어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29) 이어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4(1), 31-70.
- 30) 오명자(2010).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이은정(2003). 중년기의 부부관계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이주연 · 정혜정(2013).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서 성인 자녀관계의 매개효과: 자기 상대방효와 상호의존모형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129-147.
- 33) 임나현 · 하규수(2012).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199-214.
- 34) 임선영 · 김태현(2002). 노년기 부부 스트레스와 결혼 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35) 장명숙 · 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 36) 정순돌(2011).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특성. 제7차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
- 37) 조성희 · 박소영(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49-174.
- 38) 정지범(2011). 국민 행복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39) 정호성 · 강성원 · 문외솔 · 박준 · 손민중 · 이찬영(2010).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40)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최원석 · 이진숙(2014).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299-327.
- 42) 통계청(2014). 2014 고령자 통계.
- 43) 한경혜 · 손정연(2015). 일 · 가족 상호성의 관점에서 본 베이비부머의 직무경험, 부부간 긴장과 행복감. 한국인구학, 38(4), 32-62.
- 44) 한경혜 · 최현자 · 은기수 · 이정화 · 주소현 ·

- 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 45) 한남제(1987). 도시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5, 165-180.
- 46) Johnson, H. A., Zabriskie, R. B., & Hill, B.(2006). The contribution of couple leisure involvement, leisure time, and leisure satisfaction to marital satisfac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40(1), 69-91.
- 47) Karney, B. R.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48) Kingdon, G. & Knight, J.(2006). Subjective well-being poverty versus income poverty and capabilities povert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7), 1199-1224.
- 49) Layard, R.(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 50) Selim, S.(2008).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3), 531-562.

- 투 고 일 : 2016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6년 7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0일